

[한솔수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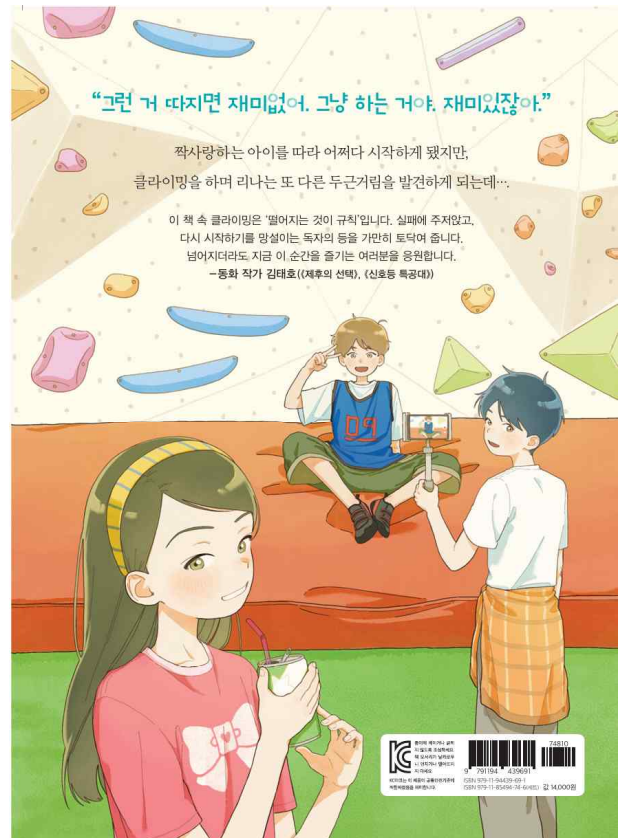
<두근두근 클라이밍> 독서 활동지

작성: 김환희 작가(교사)



읽기 전에	두근두근 클라이밍 책의 표지 살펴보기	학년 반
		이름

● 표지에서 숨은그림찾기 해 보세요.



● 표지를 살펴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1. 벽을 오르는 인물의 표정은 어떤 보이나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

2. 세 인물이 어떤 관계일 것 같나요?

.....

읽기 전에	두근두근 클라이밍 책의 제목과 차례 살펴보기	학년 반
		이름

- 내가 경험했던 ‘두근두근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아래의 감정 단어를 활용하여 그 순간에 대해 적어 보세요.

설렘	기대	궁금함	흥분	호기심
긴장	불안	두려움	조마조마함	막막함
억울함	서운함	창피함	뿌듯함	짜릿함

- 이 책의 제목에 있는 ‘두근두근’은 어떤 의미일까요? 차례를 보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해 보세요.

1. 절대 오를 수 없는 벽	
2. 담장 위의 고양이	
3. 남친 작전	
4. 세 번째 방법	
5. 어쩌다 클라이밍	
6. 참치 없는 참치김밥	
7. 쫄보 대 금붕어	
8. 밝혀진 진실	
9. 실패 모음집	
10. 마지막 문제	
11. 벽을 넘어서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학년 반
		이름

● ‘스포츠 대회’에 대해 관점이 다른 두 개의 기사를 읽어 보세요.

- 기사 1

한국 은2... 부진한 출발

기대했던 승마 마장마술 아쉬운 은메달...펜싱·역도서 동
<한겨레 1999.10.04. 특별취재반>

제12회 아시아경기대회 첫날인 3일 한국은 기대하지 않은 남자 체조 단체전에서 일본을 제치고 은메달을 따냈으나, 금메달이 기대됐던 승마와 역도, 펜싱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에 그쳐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반면, 중국은 '괴력의 마녀' 관홍(20)이 역도에서 혼자서 9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을 따는 등 모두 금메달 8개를 획득해 종합 선두로 나섰으며, 일본은 전략종목인 가라테에서 4개의 금메달을 싹쓸이하면서 6개의 금메달로 2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날 12개 종목의 경기에 출전해 남자체조 단체전과 승마 마장마술단체전에서 각각 은메달을 따는 데 머물렀다. 또 펜싱·여자역도에서 애초 예상과는 달리 3위에 그쳤다.

남자체조 단체전에 출전한 한국 남자팀은 이날 프리펙추얼 스포츠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서 종합점수 283.575점을 기록해 중국(286.60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주형-정진수-한윤수 등이 출전한 한국은 이날 마루운동·링·뽀틀 등에서는 중국에 앞서는 등 선전했으나 평행봉·철봉·안마에서 뒤져 3.025점 차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누마타 캠퍼스에서 열린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서 서정균(32·서울승마협회)-신창무(31·삼성)-최명진(38·)으로 구성된 한국팀은 총점 2,759점을 얻어 2,886점의 일본에 이어 은메달을 따내 한국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겼다.

히로시마 사에키와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역도 첫날 50kg급 경기에서는 최명식(23·상무)이 인상과 용상에서 77.5kg과 100kg을 각각 들어 올려 합계 177.5kg으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확실한 금메달 후보인 여자하키팀은 이날 예선 풀리그 첫 경기서 처녀 출전한 우즈베크를 맞아 장은정(2골)·장동숙()의 활약으로 4-0으로 가볍게 승리해 따돌리고 첫 승을 올렸다.

순위	나라	금	은	동
1	중국	8	3	1
2	일본	6	2	4
3	인도네시아	0	3	3
4	한국	0	2	2
5	대만	0	1	3
6	인도	0	1	1
7	태국	0	1	0
8	베트남	0	1	0
9	브루나이	0	0	2
10	네팔	0	0	1

◇ 메달 중간집계 (3일 현재)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학년 반
		이름

● <기사 1>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기사는 어떤 스포츠 대회에 대한 내용인가요?

.....

2. 기사에서 한국선수단이 대회를 시작할 때 거둔 성적은 어땠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

3. 기사에서 메달을 따고도 아쉬워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을 찾아 동그라미 쳐 봅시다.

.....

4.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땀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

5. 과거의 뉴스 기사는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아쉽다고 표현하거나 금메달을 놓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금메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최선을 다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

.....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학년 반
		이름

- 기사 2

선수는 “꿀씨라도 즐겁다” 국민은 “당신 덕에 즐겁다”

<중앙일보 2012.08.10. 이은경 기자>

올림픽을 보는 법이 바뀌고 있다. 금메달을 못 따면 고개를 숙였던 선수들에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라” “덕분에 즐거웠다”는 응원이 쏟아진다. 4년간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에게 보내는 박수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는 이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다.

런던 올림픽 개막 첫날인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박태환(23·SK텔레콤)이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땀다. 그는 “밤새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다.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났다.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인터넷 댓글이 봇물을 이뤘다. “여름엔 역시 은메달이지. 금메달은 더워 보여”라는 재치 있는 응원 문구도 나왔다.

9일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전에 나선 이대훈(20·용인대)은 호엘 곤살레스 보니야(스페인)에게 8-17로 졌다. “태권도는 금메달 아니면 욕을 먹는다”는 부담을 안고 있던 태권도 관계자들은 긴장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다.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대회 전에 코뼈가 부러졌던 이대훈이 결승전 도중 코를 정통으로 맞아 코피를 흘리며 싸운 것을 보고 감동했다는 내용의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다. 이대훈은 한성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죽고 난 뒤 묘비에 어떤 글이 새겨질지 적어보세요’란 숙제를 한 적이 있다. 그는 “태권도 국가대표로 2012년과 2016년, 2020년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하고 99세에 눈을 감았다”고 적었다. 이대훈은 자신이 그린 묘비명 그림을 자주 꺼내보며 꿈을 키웠다.

‘위대한 도전’을 한 선수들도 영웅이다. 사이클 조호성(38·서울시청)은 돈 잘 버는 ‘경륜 황제’의 자리를 포기하고 아마추어의 고통스러운 길로 되돌아왔다. 그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포인트레이스에서 4위에 오른 뒤 2002년 경륜 선수로 전향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2008년 아마추어로 복귀했다. 극한의 훈련을 견뎌내며 런던 올림픽을 준비했지만 사이클 옴니엄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선을 다해 도전한 만큼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트라이애슬론*에 나선 허민호(22·서울시청)는 55명 중 54등을 했다. 실격 선수 한 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꿀씨지만 그는 한국 트라이애슬론 최초로 올림픽 무대를 밟은 선구자다.

남자 20km 경보에 나선 김현섭(27·삼성전자)은 동메달 후보로 분류됐으나 1시간21분36초로 17위를 했다.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1시간19분31초)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김현섭은 대회 전 외할머니 사망 소식을 접한 뒤에도 곳곳이 훈련하며 준비했다.

*트라이애슬론: 수영·사이클·마라톤의 세 종목을 연이어 겨루는 경기.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다양한 관점 비교하기	학년 반
		이름

● <기사 2>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을 땀을 때 죄송하다고 하자, 국민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

2. 사이클 조호성 선수는 11위로 대회를 마치고, 어떤 소감을 남겼나요?

.....

3. 트라이애슬론 허민호 선수는 꼴찌를 했지만, 아주 특별한 선수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진 선수인가요?

.....

4. 기사의 제목을 볼 때, 선수와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

5. 금메달만 기억하던 <기사 1>의 시선과, 꼴찌라도 최선을 다한 과정을 응원하는 <기사 2> 시선 중 여러분은 어떤 시선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그 까닭도 함께 적어 봅시다.

.....

.....

.....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줄거리 정리하기	학년 반
		이름

-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제목	주요 사건
1. 절대 오를 수 없는 벽	
2. 담장 위의 고양이	
3. 남친 작전	
4. 세 번째 방법	
5. 어쩌다 클라이밍	

6. 참치 없는 참치김밥	
7. 쫄보 대 금붕어	
8. 밝혀진 진실	
9. 실패 모음집	
10. 마지막 문제	
11. 벽을 넘어서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등장인물의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학년 반
		이름

- 등장인물을 선택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모둠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인터뷰를 진행해 보세요.

· 내가 선택한 등장인물:

나의 질문	등장인물의 대답

- 인터뷰 기사를 작성해 봅시다.

제목:

날짜:

내용:

관련 그림

읽으면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가로세로 낱말 퍼즐	학년 반
		이름

● 가로세로 낱말 퍼즐을 풀어 보세요.

①						⑥	
①							
		③		②	⑤		
③							
②				④			
				④			
⑤							

<가로 풀이>	<세로 풀이>
① 학교 담장을 쌓을 때 사용한 재료 (남도현이 이것을 잡거나 밟고 벽을 오릅니다.) ② 맨몸으로 인공 암벽을 오르는 스포츠 ③ 물고기의 한 종류로, 기억력이 안 좋거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④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⑤ 성적을 나타내는 숫자	① 흠잡을 데가 없이 아주 바르고 훌륭함. ②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오랜 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 ③ 단어를 일정한 차례로 엮어서 간단히 풀이한 책. ④ 리나가 좋아하는 남자아이의 이름. ⑤ 승우의 머리가 뽀글뽀글해서 리나가 붙여준 별명. ○○ 머리. ⑥ 도현이 담장에 올라 구한 동물.

읽고 나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릴레이 글쓰기	학년 반
		이름

● 뒷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짝과 릴레이 글쓰기 해 보세요.

- 첫 번째 칸에 내가 먼저 써요.
- 짝과 바꾼 뒤, 두 번째 칸에 이어서 써요.
- 다시 돌려받아, 세 번째 칸에 이어서 써요.

1. 나 :

2. 짝:

3. 나:

읽고 나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나만의 도전 계획하기	학년 반
		이름

- 최선을 다해 뿌듯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

.....

.....

● 나만의 도전 계획하기

1.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 매일 책 10페이지 읽기, 어려운 악보 한 곡 끝까지 연주하기, 새로운 친구에게 먼저 말 걸어 보기 등)

.....

2. 이 도전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도전을 시작하기 전, 나에게 해 주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

읽고 나서	두근두근 클라이밍 나만의 도전 일지 쓰기	학년 반
		이름

● 나의 도전 목표

.....

● 나의 도전 일지

횟수	날짜	시도한 내용	노력 점수
1	월 일		☆☆☆☆☆
2	월 일		☆☆☆☆☆
3	월 일		☆☆☆☆☆
4	월 일		☆☆☆☆☆
5	월 일		☆☆☆☆☆
6	월 일		☆☆☆☆☆
7	월 일		☆☆☆☆☆
8	월 일		☆☆☆☆☆
9	월 일		☆☆☆☆☆
10	월 일		☆☆☆☆☆

● 도전을 마치고 느낀 점이나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보세요.

.....

.....

.....

<가로세로 낱말 퍼즐 정답>

① 완						⑥ 고	
❶ 벽	돌					양	
		③ 단		❷ 클	⑤ 락	이	밍
❸ 금	봉	어			면		
		장					
② 편				④ 남			
의				❹ 도	화	지	
❺ 점	수			현			